

## ■ 차기 대선을 앞둔 룰라의 딜레마

박 원 복

지난달만해도 룰라는 80%에 육박하는 인기를 누렸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재임기간의 정치일정도 순항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며 내년에 대선을 앞둔 정국도 어느 후보가 그의 후광을 업느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모두가 그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룰라가 여성인 정무장관 질마(Dilma)를 자신의 차기 대선 후보로 공식화했을 때도 룰라가 속한 노동자당(PT)은 떨떠름한 표정만 지었을 뿐 아무런 반발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다.

첫째, PT당 소속의 연방 상원의원으로서 환경부장관을 지낸 마리나 실바(Marina Silva)가 질마와 불화로 전격사임하고 녹색당(PV)으로 당적을 옮길 것이 확실해졌다. 게다가 마리나가 PV의 차기 대선후보로 추대될 경우 룰라에게는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질마보다는 마리나가 PT내에서 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질마의 경우는 본래 민주노동당(PDT)출신으로서 PT와 잦은 불화를 일으켰다. 룰라로부터 차기 대선(내년 10월 예정) 후보로 낙점을 받은 후, 질마는 당시에 환경부장관이었던 마리나를 거세게 몰아세우더니 결국 장관직에서 축출하고 말았다.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룰라의 질마 지명에 떨떠름해하던 PT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특히 마리나가 PV로 옮겨가 대선 후보로 나설 경우 질마의 표를 잠식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둘째, 지난 달 이후 연방 상원의장인 주제 사르네이 전 대통령



브라질의 차기 유력 대선후보 질마

을 둘러싼 각종 불법행위가 언론에 폭로되면서 룰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르네이는 룰라정부와 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수장 격이다. 따라서 현재 하원에서 다수석을 차지하는 PMDB의 지지가 절실한 룰라는 그의 불법행위를 감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르네이의 온갖 부정행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그의 인기도 차츰 하향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여 1년 4개월 남짓 남은 그의 재임기간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만약 상원의

윤리위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PT의원들이 사르네이의 사임을 촉구할 경우, 그래서 룰라가 사르네이와의 관계를 청산할 경우 전통적으로 그랬듯이 PMDB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의 순항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화 대비 헤알화의 고평가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미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헤알화의 상대적인 평가절상은 브라질 산업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브라질 제조업체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내년 대선 때까지 지속된다면 룰라와 그의 후보 질마의 앞날은 암울할 수밖에 없다.

다섯째, 연방조세국 문제를 들 수 있다. 최근에 연방조세국장

인 리나 비에이라(Lina Vieira)가 사임하면서 조세국 직원들의 집단반발이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비에이라의 사임이 룰라에 의해 차기 대선후보로 지목된 질마(Dilma)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기업인들의 압력을 받은 그녀가 연방조세국에게 대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줄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국영석유공사 페트로브라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그녀가 모종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배경에는 차기 대선의 돈줄인 페트로브라스 등 대기업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므로 룰라는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그것도 모두 자신이 초래한 측면이 크다.

만일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14개월 남짓 남은 차기 대선은 룰라의 각본대로 순탄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여론 조사기관인 DataFolha에 의하면 강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목되고 있는 브라질민주사회당(PSDB)의 후보이자 현 상파울루주지사인 주제 세하(José Serra)가 37%~38%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룰라(PT)의 후보인 질마는 16%~17%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룰라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돌파구가 절실한 시점이다.□